

#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아쉬워...잊혀질까 걱정”



18일 서울 중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이 철거되고 있다. 철거 작업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4년 8개월만이다. 기존에 천막이 위치하던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조성돼 다음달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운영됐던 세월호 천막이 18일 철거됐다. 2014년 7월 처음 설치된 이후 약 4년8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4개동 천막에 대한 철거에 나섰다. 분향소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조성돼 4월12일 시민에게 공개된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지난 16일 세월호 천막 내 집기와 비품을 정리했다. 이어 17일 오전 10시에는 세월호 천막 내에 존치돼 있는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을 진행했다. 영정 옮기는 의식은 이안식이다. 다만 이운식으로 이름이 결정됐다. 영정을 옮길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해 유가족 측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운식은 불교·개신교·천주교 의식, 추모사에 이어 유족들이 희생자 304명 중 289명의 영정을 하나씩 옮겨 상자에 담은 순서로 진행됐다. 영정은 서울시청으로 옮겨졌다. 당분간 지하 4층 문서 창고에 보관된다. 유가족들은 영정을 어디로 옮길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2014년 7월14일 세월호 유족 측이 천막 2개동을 설치다.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인도적 지원 차원의 2개동이 설치됐다. 천막 숫자는 늘어나 14개가 설치된 것"이라며 "2014년 서울도서관 3층에 세월호 참사 추모공간 개장하면서 사고 직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가 2019년 1월에 철거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43분부터 광화문 광장을 지키던 14개동 세월호 천막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완전히 철거되기까지는 4~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를 빈 공간을 드러내는 광화문 광장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췄다. 세월호 천막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안재경(38)씨는 "사무실에서도 출근할 때도 몇 년째 매일 보던 풍경"이라며 "천막이 영원히 이 자리를 지킬 수는

## 2014년 7월 설치...4년 8개월 만

## 전시공간, 분향소 절반 규모 설치

## 4월12일 시민 개방...기억 담아

없겠지만 이대로 철거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 같아 많이 아쉽고 마음이 안 좋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이던 방승훈(29)씨도 세월호 천막의 마지막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방씨는 "아직 해결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막을 철거한다니 슬픈 기분이 들어 멈춰서 보게 됐다"며 "집권 전에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가족위원회는 천막이

철거되는 이날도 '세월호 참사'는 304명을 죽인 범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문서를 즉시 공개하라는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섰다.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현 분향소 위치(교보문고 방향)에 목조형태의 면적 79.98㎡ 규모로 조성된다. 현 천막의 절반 규모다.

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간과 콘텐츠는 세월호 기억·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과 시민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주제는 '그날의 기억·기억을 담은 오늘·내일의 약속'이다. 참사 당시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모습을 그렸다.

공간은 ▲전시실 ▲전시실2 ▲시민참여공간 ▲진실미증대로 구성된다. 각종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시실은 '기억을 담은 오늘'을 주제로 꾸며진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반진다'는 촉각적 교감을 원한다는 것에 착안, 인터랙티브 조명 작품을 설치한다. 관람객이 만지면 체온이 전해져 빛이 되고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게 되는 공간이다. 사람들의 체온이 더해지면 빛이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전시실은 '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영상 애니메이션, 키오스크 전시 작품으로 구성된다. 영상 전시는 기억 및 전시공간의 탄생 과정을 보여준다. 선 드로잉 애니메이션 전시는 안전사회에 대한 희망과 꿈을 이야기 한다.

키오스크 전시는 관람객들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었던 상처를 치유하면서 위로가 됐던 말을 공유한다.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 관람객은 또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민참여공간은 '그날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다. 그래픽 디자인, 그림 작품들이 10인치 모니터를 통해 구현된다.

# “제2의 국립고시원 막자”...2평 이상·창문 의무 설치

## 자동물뿌리개 설치요건 완화...2년내 전체 설치 목표

서울시가 시내 고시원에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를 확대 설치하고 각 방의 최소면적을 7㎡로 정한다. 또 고시원 내 창문 설치를 의무화한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구 국립고시원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전 종합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인 '고시원'은 구획된 공간 안에 합숙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다. 전국에는 1만1892개 고시원이, 서울에는 그 중 절반에 가까운 5840개가 있다.

화재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자동물뿌리개가 확대 설치된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자동물뿌리개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라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자동물뿌리개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34억 원을 들여 222개소에 설치하는 데 그쳤다.

시는 올해 고시원 자동물뿌리개 설치예산을 전년(6억3000만원) 대비 약 2.4배인 15억원으로 책정했다. 연내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자동물뿌리개가 설치된다. 설치비 지원조건인 '입실료 5년간 동결' 조항도 3년 동결로 완화된다.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자동물뿌리개 설치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2년 안에 시 내 모든 고시원에 자동물뿌리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주거기준을 마련해 고시원 시설의 최저기준을 설정,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에 그쳤다. 창문 없는 방(막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했다.

새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이 적용되면 앞으로 시내 고시원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 설치도 의무화된다.

시는 또 고시원 거주자를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월세 일부(1인 월 5만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아울러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에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이 있는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한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교류하는 거점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개조(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72억원이 투입된다.



## 강운태 前광주시장, 영등포구청서 강의

### ‘공직자 소명’ 주제로 공직자 기본자세 등 설명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15일 오전 8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초청해 '탁트인 아침명사특강'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전 시장은 농림수산부장관, 최연소 내부부장관, 제16·18대 국회의원, 광주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40여년간 공직에서 겪었던 경험을 곁들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자세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특강에서 'YES운동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YES운동이란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자각하고 모든 문제와 민원을 미래 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의 처리를 의미한다.

이끌어 가기 위한 10계명으로 ▲행정은 종합예술이다 ▲문제 의식과 탐구능력을 길러라 ▲간절하면 지혜가 떠오른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라 ▲실책을 두려워하지 말라 등을 제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채 구청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아침명사특강이 개인과 조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위해

### 환경개선비 15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미래유산 보존을 위해 소규모 수리와 환경개선 수리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미래유산은 다수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공동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이다.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문화재와 달리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 스스로 발견하고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까지 총 461개의 유·무형 유산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총 24개소의 미래유산을 선정해 소규모 수리와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총 41개소의 미래유산에 대한 50건의 홍보물을 만들어 지원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도 지원 신청을 받아 소유자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시설물이나 영영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소 등에 대해 소규모 수리와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민간의 미래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 개소당 150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가 지원된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